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김종임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Relations between the Academic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ng-Im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였고, 분석 대상은 207명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적 통계, t-tset, ANOVA, Pearson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관련성에서는 학년($F=7.12, p<.001$), 나이($F=6.79, p<.001$), 대학생활 만족도($F=23.52, p<.001$), 성적($F=13.42, p<.001$), 건강상태($F=3.62, p=.028$)에서 차이가 있었다.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여 학업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 시킬 수 있으므로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에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associ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research period was October and November 2022, and the subjects were nursing students from certain areas. Data obtained from 207 nursing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ssociation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ajor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were examined. Differences were obtained for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rade($F=7.12, p<.001$), age($F=6.79, p<.001$),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F=23.52, p<.001$), marks($F=13.42, p<.001$), and health($F=3.62, p=.028$). The study also investigated whether self-efficacy had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Partial mediating effects were obtained, indicating that self-efficacy plays partial mediating rol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thereby mitigating the impacts of academic stress on major satisfaction. This signifies the need to consider the enhancement of self-efficacy in a strategy designed to increase major satisfaction.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targeted to increase th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hich includes enhancing their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improving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e campus environment.

Keywords : Academic Stress, Major Satisfaction, Self Efficacy, Nursing Student,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Jong-Im Kim(Jungwon Univ.)

email: jikim17@jwu.ac.kr

Received February 8, 2023

Accepted April 7, 2023

Revised March 2, 2023

Published April 30,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인생의 발달단계에 있어 변화가 많은 시기로, 학교생활에서는 능동적으로 학업에 임하면서 진로를 구체화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1],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는 정서적 독립이나 경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이다[2]. 이들의 경험하는 어려움은 대학생활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신체적, 환경적, 사회적 변화로 적응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스트레스에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3,4]. 이러한 대학생의 스트레스 원으로는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업으로 나타났으며,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 등의 순으로[5] 보고되고 있다.

학업스트레스는 학생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학업과 관련하여 겪는 모든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학업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적응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6].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은 교육과정에서 엄격하고 과중한 학습으로 인해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7]으로 알려져 있다.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8]에서도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면 학교적응을 잘하지 못하게 되고,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전공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9] 주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효율적인 간호 전공교육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이 당면하는 학업스트레스의 요인을 점검하고[10] 스트레스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요인은 학업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있지만,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을 심층적으로 밝히는 연구[11]가 부족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업스트레스 조절전략을 개발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련의 행위들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되며[12],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13,14] 보고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13],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며[15], 적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에서

도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매개변인[17]이며, 학습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를 높여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전략으로 자기효능감을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전공만족도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기대와 실제 대학생활을 통해 경험된 내용을 비교 판단하는 과정으로[19] 전공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 결정에 영향이 크고, 전공만족도가 낮은 사람은 학과 적응이나 전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19].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 중에서 교수, 교우 관계, 커리큘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20], 스트레스나 갈등 극복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21]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할 것이므로[22], 만족도 높은 전공교육을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탐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임상실습 관련[3], 스트레스 매개변인[17], 1. 2학년 간호대학생 학업스트레스[23], 학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24] 등 관련 연구들이 있지만 간호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효능감이 이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하고,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3.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5.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 소재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보조자가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 내용을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도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연구를 거절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공지하였으며, 익명이 보장되고 개인적 사항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설명하여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 3.1.9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기준으로 표본 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 크기 0.15, 검정력 .95, 예측요인 8개로 필요한 최소 표본 수를 구할 때, 160명이 선정되었다. 탈락율 20% 이상을 고려하여 총 220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13부를 제외한 20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분한 수준으로 판단 되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 특성,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년, 성적, 학교생활만족도, 건강상태 등으로 구성하였다.

2.3.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Kim[25]의 의대생

및 의전원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척도는 하위 영역으로 학업문제 7문항, 가족문제 6문항, 진로문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문항, 연구에 필요하지 않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반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 .87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Ha[26]가 개발한 도구를 Lee[27]가 수정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영역으로 일반만족 6문항, 인식만족 6문항, 교과만족과 관계 만족이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시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89이었다.

2.3.3 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Scale)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Sherer 등[28]이 개발한 문항이며, Hong[29]이 번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영역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대인관련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긍정적 문항 10문항과 부정적 문항 13문항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개발 시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 .89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

기효능감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 분석은 Duncan을 이용하였다.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의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는 SPSS PROCESS Macro 3.3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의 유의성 검증은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계수가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나이,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종교, 건강상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37명(17.9%), 여자가 170명(81.1%)이었으며, 나이는 22-24세가 98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상 22명(10.6%)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50명(24.1%), 2학년 54명(26.1%), 3학년 52명(25.1%), 4학년 51명(24.6%)이었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만족'하는군 96명(46.4%)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하는군 15명(7.2%)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위권'이 111명(53.6%)로 가장 많았으며, '상위권' 63명(30.4%) 이었고, 종교는 '없음'이 149명(72%)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는 건강상태가 '좋음'이 148명(71.5%), '보통'이 (24.6%)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 만족도($F=9.14, p<.001$)와 성적($F=3.09, p=.030$), 건강상태($F=11.63,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불만족'하는군 $3.56 \pm .56$ 으로 '만족'하는군은 $2.56 \pm .60$ 보다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은 군은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성적에서도 성적이 낮은 군은 성적이 높

은 군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성적이 낮은 군 $2.86 \pm .58$, 성적이 높은 군의 학업스트레스 $2.55 \pm .66$ 보다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도 건강상태가 나쁜 군이 $3.12 \pm .91$ 로 건강상태가 좋은 군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F=6.792, p<.001$), 학년($F=7.12, p<.001$), 대학생활 만족도($F=23.52, p<.001$), 성적($F=13.42, p<.001$), 건강상태($F=3.62, p=.02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에서는 나이가 19-21세 군에서 전공만족도가 $3.95 \pm .60$ 으로 나이가 25세 이상인 군보다 높았다. 학년에서는 1학년이 $4.05 \pm .51$ 로 가장 높았으며, 4학년이 $3.54 \pm .62$ 로 가장 낮았다. 사후분석에서도 1학년이 전공만족도가 3.4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하는 군이 $4.02 \pm .57$ 로 만족하지 않는군 $3.12 \pm .53$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군이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은군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성적에서도 성적이 높은군이 $4.00 \pm .63$ 으로 성적이 낮은 $3.35 \pm .67$ 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사후분석에서도 성적이 '높은' 군이 성적이 '낮은' 군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에서는 대학생활 만족도($F=6.25, p=.002$)와 성적($F=9.96, p<.001$), 건강상태($F=4.21, p=.016$)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군은 $3.46 \pm .49$ 로 '불만족'하는군 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만족'하는 군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성적에서는 성적이 '높은' 군이 $3.51 \pm .59$ 로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건강상태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은' 군이 $3.41 \pm .49$ 로 자기효능감이 높았다(Table 1).

3.3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정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척도기준 5점 만점에 $2.67 \pm .60$ 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인 학업문제 스트레스는 $3.23 \pm .70$ 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문제 스트레스는 $2.45 \pm .73$, 진로문제 스트레스는 $2.29 \pm .75$ 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척도 기준 5점 만점에 $3.77 \pm .62$ 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일반만족은 $3.64 \pm .60$, 인식만족은 $4.11 \pm .7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Academic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 Variables | Categories | n | % | Academic Stress | | | Major Satisfaction | | | Self-Efficacy | | |
|------------------------------|--------------------------|-----|-------|-----------------|-------|-------|--------------------|-------|-------|---------------|------|-------|
| | | | | M±SD | t/F | p | M±SD | t/F | p | M±SD | t/F | p |
| Gender | Male | 37 | 17.9 | 2.58±.9.84 | -.984 | .326 | 3.73±.55 | -.383 | .702 | 3.45±.53 | 1.35 | .177 |
| | Female | 170 | 81.1 | 2.69±12.48 | | | 3.77±.63 | | | 3.32±.50 | | |
| Age(yr) | 19-21 ^a | 87 | 42.0 | 2.68±.64 | .230 | .795 | 3.95±.60 | 6.79 | .001 | 3.36±.51 | .26 | .769 |
| | 22-24 ^b | 98 | 47.3 | 2.67±.59 | | | 3.65±.61 | | a>b,c | 3.42±.52 | | |
| | ≥25 ^c | 22 | 10.6 | 2.59±.43 | | | 3.57±.60 | | | 3.40±.48 | | |
| Grade | 1st ^a | 50 | 24.1 | 2.71±.65 | .449 | .718 | 4.05±.51 | 7.12 | .000 | 3.34±.47 | .882 | .451 |
| | 2nd ^b | 54 | 26.1 | 2.59±.63 | | | 3.84±.62 | | a>b,c | 3.41±.52 | | |
| | 3rd ^c | 52 | 25.1 | 2.71±.64 | | | 3.64±.61 | | | 3.26±.52 | | |
| | 4th ^d | 51 | 24.6 | 2.66±.46 | | | 3.54±.62 | | | 3.38±.52 | | |
|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 Satisfied ^a | 96 | 46.4 | 2.56±.60 | 9.14 | .000 | 4.02±.57 | 23.52 | .000 | 3.46±.49 | 6.25 | .002 |
| | Common ^b | 96 | 46.4 | 2.68±.56 | | a,b<c | 3.61±.55 | | a>b,c | 3.28±.49 | | a,b>c |
| | Unsatisfied ^c | 15 | 7.2 | 3.56±.56 | | | 3.12±.53 | | | 3.04±.50 | | |
| Credit | High ^a | 63 | 30.4 | 2.55±.66 | 3.09 | .030 | 4.00±.63 | 13.42 | .000 | 3.51±.59 | 9.96 | .000 |
| | Middle ^b | 111 | 53.6 | 2.66±.55 | | a,b<c | 3.75±.53 | | a>b,c | 3.34±.45 | | a,b>c |
| | Low ^c | 33 | 15.9 | 2.86±.58 | | | 3.35±.67 | | | 3.04±.37 | | |
| Religion | Yes | 58 | 28.0 | 2.69±.60 | .387 | .699 | 3.84±.55 | 1.10 | .271 | 3.36±.44 | .288 | .774 |
| | No | 149 | 72.0 | 2.66±.60 | | | 3.74±.64 | | | 3.34±.53 | | |
| Health state | Good ^a | 148 | 71.5 | 2.55±.55 | 11.63 | .000 | 3.82±.59 | 3.62 | .028 | 3.41±.49 | 4.21 | .016 |
| | Moderate ^b | 51 | 24.6 | 2.94±.51 | | a<b,c | 3.57±.68 | | a,b<c | 3.18±.53 | | |
| | Poor ^c | 8 | 3.9 | 3.12±.91 | | | 4.01±.47 | | | 3.25±.57 | | |
| Total | | 207 | 100.0 | 2.67±.60 | | | 3.77±.62 | | | 3.35±.51 | | |

a,b,c,d,e: Duncan test

교과, 관계만족은 3.54±.70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척도기준 3.35±.51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3.38±.57, 사회적 자기효능감 3.90±.59로 나타났다(Table 2).

3.4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와($r=-.300, p<.001$) 자기효능감과($r=-.435, p<.001$)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자기효능감($r=.41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3).

3.5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델1에서는 일반적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모델2에서는 학업스트레스, 모델3에서는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였다.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학년, 건강상태는 더미 처리하였다. 일반적 특성 등을 투입하여 살펴본 관련성은 ($F=10.87, p<.001$) 학년($\beta=-.18, p=.030$), 성적($\beta=.16, p=.010$), 대학생활 만족도($\beta=-.35, p<.001$)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델1의 설명력은 21%이었다. 모델2에서는

Table 2. Level of Academic stress,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N=207)

| Variables | | Items score M±SD | Range |
|--------------------|------------------------------------|------------------|-------|
| Academic stress | Academic problem stress | 3.23±.70 | 1-35 |
| | Family problem stress | 2.45±.73 | 1-30 |
| | Career problem stress | 2.29±.75 | 1-35 |
| | Total | 2.67±.60 | 1-100 |
| Major Satisfaction | General satisfaction | 3.64±.71 | 1-30 |
| | Recognition satisfaction | 4.11±.77 | 1-30 |
| | Subject, relationship satisfaction | 3.54±.70 | 1-30 |
| | Total | 3.77±.62 | 1-90 |
| Self-efficacy | General self-efficacy | 3.38±.57 | 1-85 |
| | Social self-efficacy | 3.90±.59 | 1-25 |
| | Total | 3.35±.51 | 1-115 |

Table 3. Correlation Academic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N=207)

| Variables | Academic Stress | | Major Satisfaction | | Self-Efficacy | |
|--------------------|-----------------|---------|--------------------|---------|---------------|---|
| | r | p | r | p | r | p |
| Academic Stress | 1 | | | | | |
| Major Satisfaction | .300 | <.001** | 1 | | | |
| Self-Efficacy | -.435 | <.001** | .419 | <.001** | 1 | |

**p<0.01

Table 4. Factors related to Major Satisfaction

(N=207)

| Variables | Model I | | | | Model II | | | | Model III | | | |
|-------------------------------|---------------|---------|------|-------|---------------|---------|-------|------|---------------|---------|-------|------|
| | B | β | t | p | B | β | t | p | B | β | t | p |
| Gender | .02 | .11 | .01 | .172 | .06 | .03 | .54 | .287 | .08 | .05 | .66 | .339 |
| Age | -.06 | -.09 | -.04 | -.121 | -.02 | -.02 | -.25 | .395 | -.50 | -.52 | -.57 | .368 |
| Grade | -.10 | -.18 | -.18 | .030 | -.11 | -.20 | -2.3 | .012 | -.09 | -.16 | -1.8 | .057 |
| Academic credit | .25 | .16 | 2.5 | .010 | .13 | .09 | 1.57 | .029 | .16 | .09 | 1.4 | .017 |
|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 -.30 | -.35 | -5.6 | .000 | -.25 | -.30 | -5.03 | .000 | -.25 | -.30 | -5.0 | .000 |
| Health state | -.03 | -.03 | -.46 | .292 | .03 | .03 | .45 | .357 | .05 | .04 | .70 | .375 |
| Academic stress | | | | | -.18 | -.19 | -1.4 | .010 | -.20 | -.19 | -1.38 | .013 |
| Self-Efficacy | | | | | | | | | .33 | .17 | 2.23 | .000 |
| Constant | 4.795 | | | | 5.106 | | | | 5.212 | | | |
| F(p) | 10.87(p<.001) | | | | 10.57(p<.001) | | | | 12.57(p<.001) | | | |
| R ² | .238 | | | | .262 | | | | .327 | | | |
| Adjusted R ² | .216 | | | | .238 | | | | .301 | | | |
| R ² change | .238 | | | | .024 | | | | .065 | | | |

Dummy variable: Gender: M=1 F=0, Grade: 1=1, etc=0,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action=1, Academic achievement: Medium-high =1, Medium-Low =0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N=207)

| Step | Model | B | SE | Beta | t | Adjusted R ² | F | p |
|--|------------------------------------|-------|------|-------|-------|-------------------------|-------|-------|
| 1. | Academic Stress→Self Efficacy | -.446 | .064 | -.435 | -6.92 | .196 | 47.93 | <.001 |
| 2. | Academic Stress→Major Satisfaction | -.322 | .081 | -.300 | -4.50 | .098 | 20.25 | <.001 |
| 3. | Academic Stress→Major Satisfaction | -.135 | .065 | -.145 | -2.07 | .199 | 30.44 | <.001 |
| | Self Efficacy→Major Satisfaction | .340 | .067 | .356 | 5.09 | | | |
| Indirect effect | | | | B | SE | LLCI | ULCI | |
| Academic Stress→Self Efficacy→Major Satisfaction | | | | .332 | .066 | .2003 | .4636 | |

학업스트레스를 추가하여 관련성을(F=10.57, $p<.001$) 살펴보면, 학년($\beta=-.20$, $p=.012$), 대학생활 만족도($\beta=-.30$, $p<.001$), 학업스트레스($\beta=-.19$, $p=.010$)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전공만족도에 관한 2단계에서의 변화된 설명력은 모델1에서 20%, 모델2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추가됨으로써 24%로 설명력을 증가시켜 전공만족도에 학업스트레스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델3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추가하여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을 투입함에 따라 관련성을(F=12.57, $p<.001$) 살펴보면, 대학생활 만족도($\beta=-.30$, $p<.001$) 학업스트레스($\beta=-.19$, $p=.013$)과 자기효능감($\beta=.17$, $p<.001$)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모델3에서 변화된 설명력은 모델2 보다 6% 증가되어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의 영향력을 30%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성을 확인 결과,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인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1.080-2.234로 10보다 작게 나타나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값은 1.897로 나타나 오차 간 상관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3.6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다중회귀분석 및 Hayes의 PROCESS Macro 3.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30].

매개효과 검증 절차의 1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485$, $p<.001$), 설명력은 19.6%이었

다. 2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300$, $p<.001$),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beta=-.145$, $p<.001$),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 값($\beta=.145$)이 2단계에서의 값($\beta=.435$)보다 작아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9.9%이었다.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을 추정한 결과, .2003-.4636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2.67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park 등[31]의 연구에서는 2.70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 등[3]의 연구에서 3.3점으로 본 연구가 약간 낮게 나타났다. 추후 학교나 학과의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군이 만족하는 군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성적이 좋지 않은 군이 성적이 좋은 군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군이 건강상태가 좋은 군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9,32]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학습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을 수립하여 건강한 대학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전공만족도의 점수는 변수기준 3.77점으로, Park 등[31]의 3.78점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에서는 학년, 나이,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Yang 등[3]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 때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학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증재가 되지 못할 때 학업성취나 성적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3], 전공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학년이 낮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만족도 높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량과 임상실습의 부담으로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Oh[33]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변수기준 3.3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Yun 등[34]의 3.48점보다 낮았고, Park 등[13]의 3.33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에서는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결과는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Yun 등[34]의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간호대학생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 관리를 하는 것이 학업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증재하는 방법이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선행연구[35]의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3,13,35]에 의해 지지되었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이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더불어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도록 하는 증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Park 등[31]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에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추후 변수를 추가한 매개효과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을 강화시켜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고 긍정적이고 안정된 대학생활에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과 내 시스템을 마련해 주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높여 주고 높여진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에서는 학년, 나이,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건강상태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은 음의 상관관계를,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를 30%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학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 요인을 포함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 효과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D. H. Ahn, G. H. Park, K. J. Back, S. I. Chung, "Academic motivation, academic stress, and perception of academic performance in 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19, No.1, pp.99-71, 2007.
DOI: <https://doi.org/10.3946/kjme.2007.19.1.59>
- [2] H. J. Park, M. Y. Kim, D. Y. Jung, "The effect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the mental health of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 Nursing*, Vol.15, pp.513-521, 2008. Available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64136942>
- [3] Y. K. Yang, K. S. Han, M. H. Bae, S.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s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rach*, Vol.22, No.1, pp.23-33, 2014.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4.22.1.23>
- [4] O. H. Bae, S. O. Hong, "The study of self-effect of self differentiation degree on stress level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Living Science*, Vol.17, No.1, pp.27-34, 2008.
DOI: <https://doi.org/10.5934/kihe.2008.17.1.027>
- [5] G. S. Yoo, D. W. Shin,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on academic burnout and employment stres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Vol.14, No.6, pp.3849-3869, 2013.
DOI: <https://doi.org/10.15703/kjc.14.6.201312.3849>
- [6] S. Recharad, Lazarus and Susan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DOI: <https://doi.org/10.1017/s0033291700031652>
- [7] M. S. Lee, K. S. Kim, M. K. Cho, J. W. Ahn, S. O. Kim, "Study of stress,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and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quality of life," *The Journal of Music and Health*, Vol.21, No.2, pp.125-134, 2014.
DOI: <https://doi.org/10.5953/imih.2014.21.2.125>
- [8] N. H. Cha,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justmant at university life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7, No.2, pp.124-131, 2016.
DOI: <https://doi.org/10.12799/jkachn.2016.27.2.124>
- [9] S. H. Shin,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nd the moderrating effects of academic resilience onnursing students depress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1, pp.14-24,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1.14>
- [10] S. H. Hong, G. S. Kim, D. B. Joo, "The Effect of Resilience o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9, pp.443-450, 202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11.9.443>
- [11] E. K. Byun, M. Y. Kim, "Effect of ego-resilience,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6, No.2, pp..223-230, 2020.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0.6.2.223>
- [12] J. S. Lee,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adaptation to university students campus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10.
- [13] H. S. Park, J. M. Yun, S. N. Lee., S. R. Lee. M.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3, No.1, pp.35-45, 2018.
DOI: <https://doi.org/10.21032/jhis.2018.43.1.35>
- [14] A. Zajacova, S. M. Lynch, T. J. "Espenshade, Self-efficacy, stress, and academic success in college,"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48, pp.677-706, 2005.
DOI: <https://doi.org/10.1007/s11162-004-4139-z>
- [15] M. M. Chemers, L. T. Hu, B. F. Gareia, "Academic self-efficacy and frist year college students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93, pp.55-64, 2001.
DOI: <https://doi.org/10.1037/0022-0663.93.1.55>
- [16] A. Bandura,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aceman, 1997.
DOI: <https://doi.org/10.5860/choice.35-1826>
- [17] H. J. Choi, E. J. Lee,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9, No.2, pp..261-268, 2012.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2.19.2.261>
- [18] K. H. Kim, E. H. Hwang,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2, pp.436-445,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2.436>

- [19] H. J. Choi,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6, pp.68-77,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6.68>
- [20] B. J. Woo, H. K. Lee, "KyungEffects of Health Perception,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f College Students on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6, No.4, 2019.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19.36.4.1290>
- [21] Y. S. Kang, S. K. Hwang,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7, pp.3301-3309,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7.3301>
- [22] H. J. Choi,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6 pp.68-77,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6.68>
- [23] E. H. Kim, "Relationship of academic stress, sociality and self 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5, pp.498-505,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5.498>
- [24] M. S. Ko,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10, pp.280-291,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10.280>
- [25] M. J.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ress scale for medica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2015.
- [26]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2000.
- [27]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14.
- [28] M. Sherer, J. E. Maddux, B. Merac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R. W. Rogers, "The self 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1982.
DOI: <https://doi.org/10.2466/pr0.1982.51.2.663>
- [29] H. Y. Hong,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995.
- [30]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2013.
DOI: <https://doi.org/10.1111/jedm.12050>
- [31] H. J. Park, E. J. Yoo, H. Y.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factors affecting self-effectiveness and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0, No.2, pp.310-322, 2020.
DOI: <http://dx.doi.org/10.5392/JKCA.2020.20.02.310>
- [32] S. Shin, "Influence from the academic stress by the achievement pressure of their parents and adjustment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11, pp.6756-6766,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11.6756>
- [33] J. H. O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0, pp.873-884,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0.873>
- [34] S. Y. Yum, M. S. Kim, "A Study on the relevance among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nursing ethics values in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2, pp.363-372, 2014.
DOI: <https://doi.org/10.14400/JDC.2014.12.2.363>
- [35] S. K. Kwon, J. Y. Lee, J. Y. Jang, "The cluster of academic inferior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emotional regulation, and their differ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6, No.3, pp.87-106, 2015.
DOI: <https://doi.org/10.15753/aje.2015.09.16.3.87>

김 종 임(Jong-IM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간호교육, 감염관리